

른다」로 32.19% 이었다.

5. 응답자의 연령별 피로자각증상, 호소의 빈도는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호소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정신적 증상항목($p < 0.01$)과 신경감각적 증상항목($p < 0.01$)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6.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피로자각증상의 호소빈도는 감소되는 경향을 볼 수 있었으며 정신감각적 증상 항목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7. 응답자의 주거상태에 따른 피로자각증상에는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신경감각적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p < 0.01$) 「기타」군과 「셋집」에 거주한다는 군에서 가장 피로도를 높게 나타내었다.

8. 응답자의 통근소요시간과 피로자각증상간에는 신체적, 정신적 신경감각적 증상 항목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A, B, C 군; $p < 0.01$).

9. 응답자의 근무연한에 따른 피로자각증상간에는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호소의 빈도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정신적증상 항목과 신경감각적 증상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B 군 : $p < 0.05$, C 군 : $p < 0.01$)

10. 월경유무에 따른 피로자각증상 호소의 평균간에는 월경을 「한다」라고 응답한 경우에서 호소의 빈도가 높았으며 3명상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A, B, C 군 : $p < 0.05$).

11. 응답자의 평소 수면시간에 따른 피로자각증상 호소간에는 자체적 증상($p < 0.01$)과 신경감각적증상($p < 0.05$)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A 증상 항목의 경우 「5~6시간」군에서 가장 피로도가 높았고, C 증상 항목의 경우는 「3~4시간」군이 가장 피로도를 높게 나타내었다.

일부 산업장 근로자들의 건강상태에 관한 조사

전북 대학 의과대학부속 간호전문대학 논문집 제8권, 1982.

서 인 선

1981년 12월 5일부터 12월 25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전라남도 여천 공업단지에 있는 4개의 산업장에 종사하는 근무자 251명을 대상으로 C. M. I. 건강질문지 195개항목 중에서 대한산업보건협회가 발표한 업종별 직업성 질환 빈도에 따라 작업종에서 많이 발생하는 건강장애 증상 28개를 선택하여 근무자들이 호소하는 각종 건강장애 증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직력별 분포는 2년 군이 39%로 가장 많았고, 이들의 평균직력은 3.3년이였다.

2. 조사대상자의 건강장애 호소율을 보면 전 항목의 평균 호소율은 45.8%였고,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장애 호소율보다 정신적인 건강장애 호소율과 이와 관계깊은 소화기장애 호소율이 높은 양상을 나타냈다.

3. 일반적으로 낮은 직력층의 건강장애 호소율이 높았으며 특히 정신적 항목, 소화기 항목에서 높은 호소율을 보였다.

4. 일반적으로 높은 직력층일수록 신체적 건강장애 호소율이 높았으며, 특히 눈, 귀 항목, 호흡기 항목의 호소율이 다른 항목보다 높았다.

결론적으로 위에 나타난 사실들로서 이들의 정신적 증상의 호소율은 신체적 증상의 호소율보다 높게 나타나 현재까지의 단편적이긴 하지만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행하여 온 신체적인 면에 집중된 건강관리 사업의 방향을 보다 정신적인 건강관리 사업으로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장 재해발생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논문, 1982.

서 인 선

전북소재 노동부지정 산업장인 모제지업체와 제련업체 각 1개소씩을 대상으로 하여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동안에 발생한 재해 261건 및 209건에 대한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산업체별로 비교·분석 함으로써 산업장에서의 안전관리사업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한 본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분포는 제지업의 경우 총재해자 261명중 남자가 250명(95.8%), 여자가 11명(4.2%)였고, 제련업의 경우 총재해자 209명중 남자가 207명(99.0%), 여자가 2명(1.0%)였다. 성별 분포에서 남자 재해자가 여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유는 대상 산업체에 근무하는 대부분의 노동자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 재해자율이 높은 것이지 남녀에 따른 타발생요인이 개제된 이유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별 분포는 제지, 제련업체 모두 25~29세 연령군이 87명(33.3%), 55명(26.3%)였고, 제련업의 경우는 3~5년군이 50명(23.9%)였으며, 교육정도별 분포는 중졸인 자가 제지, 제련업체 각각 110명(42.1%), 89명(42.6%)였다.